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7, Vol. 22, No. 2, 211-245

출산 후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

임 지 숙　　임 영 선†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을 양립하며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능한 자기(희망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막내 자녀가 만 2세 미만이며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3년 이상 일을 지속한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합의적 질적분석(CQR) 및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합의적 질적분석 결과, 3개 영역, 7개 범주, 2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희망하는 자기'로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의 2개 범주에 각각 6개, 2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두려워하는 자기'로 일-가정 양립노력 실패,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의 2개 범주에 각각 6개, 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은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양육 요인, 양립 지원 요인, 개인 내적 요인의 3개 범주에 각각 3개, 4개, 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가능한 자기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용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워킹맘, 가능한 자기, 일-가정 양립, 맞벌이, 기혼유자녀, CQR, 내용분석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5549).

† 교신저자 : 임영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포스코관 553-2호 / Tel : 02-3277-4144, E-mail : 79yslim@gmail.com

www.kci.go.kr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는 Markus와 Nurius (1986)가 제안한 다면적인 자기 개념의 미래지향적 요소들로, 단지 개인이 상상하는 일련의 역할이나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요하며 구체적인 희망과 두려움, 공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한 자기는 미래에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인 '희망하는 자기'와 회피하고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인 '두려워하는 자기'로 구성되어있다(McCleland, 2011). 일례로 희망하는 자기는 '창조적인 자기, 부유한 자기, 존경받는 자기'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두려워하는 자기는 '우울한 자기, 혼자인 자기, 실업자 자기' 등이 될 수 있다.

결혼, 부모됨, 은퇴, 배우자의 죽음, 질병의 발병과 같은 삶의 사건들을 똑같이 경험한다고 해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고 특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의 심각성이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자기와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지와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Oyserman & Markus, 1990).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지각은 인식을 형성하고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Berg, Strough, Calderone, Sansone, & Weir, 1998; Frazier & Hooker, 2006; Frazier, Hooker, Johnson, & Kaus, 2000; Sorkin & Rook, 2006).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자기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인식, 해석, 조직화, 수정, 통합하여 미래상을 만들도록 하는데(Frazier & Hooker, 2006; Frazier et al., 2000), 특히 삶이 변화를 맞이하는 전이기(transition)에는 어떠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느냐가 실제 미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Manzi, Vignoles & Regalia, 2010).

본 연구에서는 삶의 전이기 중,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절대적인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는 시기에 놓여있는 출산 후 시기 워킹맘들의 미래상에 주목하였다. 18에서 84세의 198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자기와 생애사건(life event)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Barreto & Frazier, 2012)에서 가능한 자기로 통합되어 나타난 주요한 생애사건들의 공통된 영역은 가족, 직업, 그리고 애도(bereavement)로 나타나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직장과 가족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능한 자기의 내용과도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큰 변화 속에 일과 가정을 양립해나가는 자신의 미래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Frazier & Hooker, 2006; Sorkin & Rook, 2006) 출산 후 시기의 워킹맘들이 미래의 가능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실제 삶의 모습을 갈음해 볼 수 있다. 가능한 자기는 미래 상태의 자신에 대한 비전으로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현재의 선택과 행동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Oyserman & James, 2009).

특히 출산과 육아가 워킹맘들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최근 수년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서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일-가정 양립문제는 정책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관심사로 등장하였다(김경화, 2013).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정점(3763만)을 지나 인구절벽이 시작되었는데(세계일보, 2017. 1. 1.),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은 자녀양육비 지원,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및 질

www.kci.go.kr

적 수준 재고, 탄력근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책적인 제도로서의 틀을 갖추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갖는 높은 형식주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원숙연, 2004) 제도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간, 근무시간 단축, 모성보호나 육아휴직 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류임량, 2009) 정작 일-가정 지원제도가 일-가정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김인선, 이동명, 2009; 이혜정, 유규창, 2011;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 2008) 단순히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비교적 큰 남녀기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김경화, 2013) 남성들은 자녀 돌봄 시간이 길거나 자녀수가 많으면 일-가족 갈등을 높게 인식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돌봄 시간이나 자녀수와 일-가족 갈등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자녀양육부담과 관련을 보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소득이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자원이었지만 여성들은 소득에 따른 일-가족 갈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가족 갈등은 남녀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갈등수준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돌봄 시간이나 자녀의 수,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치만으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겪는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성역할(gender role)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남과 여의 삶이 점점 더 비슷해지고 심리학적 차이가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Barnett & Hyde, 2001),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가사의 전담자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어서(강준만, 2009;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최효미, 2014; 한경혜, 장미나, 2009; 황수경, 2004) 여성들에게 출산 후 양육과 함께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역할들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분투가 되기 쉽다. 또한 여성들은 평등을 요구하면서 공적영역에서 대등하게 경쟁에 참여하자니 모성이나 돌봄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저버리게 되기 쉽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쉽게 사적영역으로 추방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장지연, 박선영, 신동균, 2014). 이러한 딜레마 속에 일을 계속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료, 상사, 조직 등 모든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가족 갈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숙연, 박지원, 2009).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낮은 정책의 실효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가치지향성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 모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한경혜, 장미나, 2009)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전혜정, 2016).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더 나

www.kci.go.kr

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중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분에서 36개국 중 34위(OECD, 2015)라는 수치로 드러나고, 또한 30~40대의 워킹맘 고통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90.9%가 '힘들다'라고 응답하는(2014, 여성·문화네트워크)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과 가정, 특히 일과 양육의 문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일상으로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삶 속에 존재하는데 핵가족화된 현재의 가족체계 내에서 맞벌이 부부가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며 일-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무리한 역할 수행, 혹은 한쪽을 포기하는 선택 등의 결과로 귀결되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사와 양육을 부부가 아니라 조부모와 같은 조력자에게 의존함으로써 부부가 담당하는 절대적인 양을 줄여 분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정환, 이선이, 2014).

실제로 결혼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2013년 61.8%에서 2016년에 40.4%로 줄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은 오히려 26.5%에서 38.3%로 늘었다(통계청, 2016). 이에 비추어볼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일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매우 긴 과정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시간적으로 쫓기고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상황 앞에서는 닥친 일상을 무리없이 수행해내는 것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워킹맘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자신의 삶의 미래상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워킹맘들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그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저조한 편이다.

출산과 육아는 가족주기를 구분짓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는 자녀의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를 출산, 양육, 교육시키고 결혼해서 독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크게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노년기로 크게 나뉜다(유영주, 2001; 윤소영, 윤주, 2008; 이수연, 2014).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5개 주기(1주기: 결혼, 2주기: 출산 및 육아, 3주기: 집중양육, 4주기: 양육완료, 5주기: 자녀 결혼 및 경제력 상실)로 재구성한 황수경(2003)의 생애주기를 참고하여 이중 첫 아이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시기로 육아부담이 극대화되는 제 2주기에 속해있는 워킹맘들의 가능한 자기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가능한 자기는 개인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와 역사적인 맥락,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Markus & Nurius, 1986). 그러므로 워킹맘들이 고유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만 2세까지는 물리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전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역동적이며 급격한 발달을 이루고 양육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는 시기여서 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

www.kci.go.kr

고(김경화, 2013) 특히 가족 내에 2세 미만의 영아의 존재는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육아를 떠맡아줄 다른 가족이 없는 한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다(황수경, 2003).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초혼연령이 늘어나며 경력단절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춰지고 있지만 M자형의 경력 단절 곡선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장영은 등, 2011).

현실적으로 일-가족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영역임에도, 기존의 관행적인 사회의 시각은 이들이 분리 가능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원숙연, 박지원, 2009).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일과 가정의 어려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고 있다는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와 안타까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노성숙 등, 2012). 또한 거시적인 인구문제에서 출발한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정책과 제도를 갖추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보다는 여성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워킹맘들은 일-가정을 양립하며 아이를 키우느라 갖게 되는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가정 양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들이 그들 자신을 주체에 두고 일-가정 양립 속에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가능한 자기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희망하는 모습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구체화하여 살펴보고 미래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그 속에서 기존의 제도 안에 담기 어려웠던 워킹맘들이 그리는 일-가정 양립의 상(像)을 구체화할 것이다. 가능한 자기는 미래의 행동에 대한 동기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현재 자기에 대한 평가적이고 해석적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Markus & Nurius, 1986). 그러므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기를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하는 것은 희망하는 자기에는 접근하고 두려워하는 자기는 회피하고자하는 동기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와 실현가능성이 높은/낮은 자기, 멀거나 가까운 미래로 시점을 달리하였을 때의 가능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다면적인 자기개념을 이해하며 미래상에 견주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가정을 양립하며 경험하는 워킹맘들의 주관적 체험 속으로 들어가 실제 일상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질적 연구(노성숙 등, 2012; 장미경, 조혜경, 이숙경, 2007)들이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에도 일을 지속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미래상을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소수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접근하지만, 연구자의 편견을 고려하여 여러 평정자의 합의과정과 감수를 거침으로써(지승희, 오혜영, 2013; Hill, 2012) 심층적이면서도 동질집단의 경험을 범주화하여 워킹맘들의 미래상인 가능한 자기(희망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의 대표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자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응답한 가능한 자기 중 가장 희망하는 자기와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기와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하였을 때의 가능한 자기의 모습 등을 추가적으

www.kci.go.kr

로 탐색하여 이러한 응답의 내용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출산 후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를 살펴보기 위해, 1) 출산휴가(1년 이내)를 제외하고 3년 이상 일을 지속한 여성, 2) 시간조율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풀타임(주당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 3) 출산이후 양육부담이 증가되는 여성의 생애 2주기 단계를 고려하여(황수경, 2003) 막내 자녀가 2세 이하인 여성의 3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3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3.77(*SD*=1.92)세이며, 직장경력은 평균 8.69년(*SD*=2.53), 결혼연차는 평균 5년(*SD*=2.52)이었고 자녀는 1명 혹은 2명이 있었다. 자녀 돌봄의 형태는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조부모나 베이비씨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출산 후 워킹맘의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연구도구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Markus와 Nuris (1986)의 '가능한 자기' 개념을 숙지한 후, 연구진의 논의를 통하여 질문지 초안을 만들었고, 예비 인터뷰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는 무엇인가?

1-1.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희망하는 자기의 모습은 무엇인가?

1-2.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은 무엇인가?

1-3. 가능한 자기가 변화한다면,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2. 다양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자기는 어떻게 보고되는가?

2-1.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는 무엇인가?

2-2.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낮은 것은 무엇인가?

2-3. (가능한 자기를 말한 시점이 가까운 미래였을 경우 먼 미래로, 먼 미래였을 경우 가까운 미래로 시점을 전환하여) 희망하는/두려워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연구절차

먼저, 출산 후 워킹맘 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1인이 질문지 초안을 가지고 예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질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인터뷰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면접자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뷰에서 면접자 변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본 인터뷰에는 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과정생 1명이 면접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1 개인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1인당 인터뷰 시간은 약 40분 내외였다. 인터뷰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 정보 (*N*=13)

NO	연령	직업	직장 연차	직급	학력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결혼 연차	자녀수 (나이)	자녀돌봄 형태
1	35	은행원	10년	대리	대졸	36	회사원	대졸	9	2 (6세, 2세)	유치원 어린이집
2	36	은행원	9년	계장	대졸	35	회사원	대졸	8	2 (3세, 2세)	어린이집
3	34	사무직	9년	사원	대졸	36	사무직	대졸	3	1 (2세)	외조부모 어린이집
4	36	공무원	10년	주사보	대졸	37	경찰	대졸	5	2 (1세, 1세)	어린이집
5	37	간호사	14년	과장	대졸	35	회사원	대졸	8	2 (5세, 1세)	유치원 외조모
6	33	은행원	7년	계장	대졸	35	연구원	대학원졸	7	2 (5세, 2세)	친조부모 어린이집
7	31	공무원	6년	주사	대졸	34	공무원	대졸	2	1 (1세)	외조모
8	35	상담원	9년	전임	대학원졸	33	은행원	대졸	6	2 (5세, 2세)	유치원 베이비시터
9	31	연구원	5년	대리	대졸	35	회사원	대졸	3	1 (2세)	친조부모 어린이집
10	33	디자이너	7년	선임	대졸	40	스포츠 강사	대졸	1	1 (2세)	본인
11	33	회사원	6년	과장	대졸	40	회사원	대졸	3	1 (3세)	외조부모 어린이집
12	32	회사원	9년	과장	대졸	35	회사원	대졸	5	1 (3세)	외조모 베이비시터
13	33	치위생사	12년	부원장	전문대졸	37	치과 기공사	전문대졸	5	1 (3세)	외조부모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및 이익에 대하여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과 연구 동의 철회, 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등도 모두 기재하여 참여자가 읽어보고 연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개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정리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www.kci.go.kr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은 합의적 질적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과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CQR은 적은 사례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Knox, Hess, Petersen, & Hill, 1997). 또한, 내용분석은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표면의 단순 기술보다 표면의 심층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 추론의 정당성을 위해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따르는 방법이다(박양주, 우영희, 2012; Anderson, Liam, Garrison, & Archer, 2001). 먼저,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에 대한 응답내용은 CQR 분석을 하였다. 그 후, 피험자가 응답한 가능한 자기 모습 중에서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피험자가 가능한 자기에 대해 응답한 것에 따라 표현의 범위가 제한되기에 CQR로 교차분석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하여 내용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출산 후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기보다는 워킹맘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합의적 질적 방법(CQR) 분석

합의를 위한 연구팀과 감수자. 합의를 위한 연구팀은 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과정생 1명, 총 3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3명은 모두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3명은 CQR 방법론 논문을 읽으며 공부하였다. 또한, 2명은 CQR 워크샵에 참석하였고, 1명은 이전 CQR 연구경험이 있어 이것을 토대로 분석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3명은 모두 워킹맘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함께 이야기 하면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감수자는 상담심리전문가이고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동시에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을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총 2번에 걸쳐 영역 및 중심개념, 그리고 교차분석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수하였다.

영역코딩. 수집된 자료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팀 3명은 각각 13개의 사례를 모두 읽은 후, 사례의 내용을 포함하는 영역을 구성하였다. 각 연구자가 나눈 영역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 합의하여 수정하였다.

중심개념코딩.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료가 지닌 중심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 3명의 연구자들이 각 사례의 축어록을 독립적으로 읽고 중심개념을 뽑으며 범주화한 후,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연구팀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원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심개념을 재요약하고 범주화하였으며, 전원이 합의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였다.

교차분석. 중심개념을 요약하고 범주화한 것이 각 사례에 얼마나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하였다.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는 모든 사례에 적용될 때, '일반적(general)', 사례의 반이나 그 이

www.kci.go.kr

상에 적용될 때, '전형적(typical)'. 반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우 '변동적(variant)'로 표시하고, 1~2 사례에 적용될 경우 자료를 버리기보다 범주를 확대해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3사례 중 모든 사례에 해당될 때 '일반적(general)', 7-12사례에 해당될 때 '전형적(typical)', 2-6사례에 해당할 경우 '변동적(variant)'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한 사례에만 해당될 경우, 범주명을 확대시켜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수정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삭제하였다. 또한 CQR은 소수 사례의 전형적인 현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보통 전형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권장되고 있어(지승희, 오혜영, 2013; Hi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변동적인 범주가 많이 나올 경우, 한 번 더 평정하였다(지승희, 오혜영, 2013). 하지만 평정 후에도 범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점을 반영하여 변동적 범주도 본문에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영역과 중심개념을 코딩하고 교차분석하는 전 과정을 합의하기 위해 연구팀은 총 5번, 약 40시간을 모여서 논의 하였다.

감수과정. 감수자는 질문지와 축어록을 살펴보며 영역과 중심개념코딩에 대해 1차로 감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수자는 원자료가 영역과 중심개념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원자료의 중요한 내용이 발췌되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는지 등을 감수하였다.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자료와 교차분석 결과를 보내어 2차로 감수를 진행하였다. 2차 감수에서는 감수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교차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감수자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팀이 논의하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차배근, 차경욱, 2013). 즉, 내용분석은 분석 전에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객관성과 설정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체계성 그리고 연구결과를 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일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과정생 1명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의 기준은 CQR 분석을 통해 확정된 범주명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즉,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한 각 질문에 응답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CQR 분석을 통해 확정된 범주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석자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3명의 분류 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결 과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

먼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에 대해 CQR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망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의 세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과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

www.kci.go.kr

과 같다.

영역 1. 희망하는 자기

첫 번째 영역인 '희망하는 자기'는 워킹맘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희망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희망하는 자기는 크게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과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의 두 범주로 분류되어 총 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희망하는 자기의 범주와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범주 1.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은 워킹맘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쓰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면서 일과 가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워킹맘이 수행하는 노력과 수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범주에는 총 6개의 하위 범주가 있으며, 이 중 4개는 전형적, 2개는 변동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음

'일 가정 양립 노력 중심'의 첫 번째 하위 범주는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음'이 11사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의 돌봄 일정을 조정하는 것, 집중하여 자녀와 놀아주는 것, 자녀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어떻게 보면은 얘네를 좋은 마음으로 키운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뭐 누구한테 맡기고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어디다 맡겨야 될 지 엄마가 만약 어쨌든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맡긴다 하더라도 오후에 엄마가 찾아서 밤에는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될 지가, 잘 됐으면 좋겠으면 하고.. (사례 4)

>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도... (중략) 주말에라도 좀 fully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 비록 몸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는 좀 집중하는 것, 그게 좀 모자람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례 9)

표 2. 희망하는 자기 영역의 범주 및 빈도

범주	하위 범주	빈도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	(일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소홀하지 않음	전형적(11)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전형적(11)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슈퍼우먼	전형적(9)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전형적(9)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	변동적(6)
	경제력을 갖춘 나	변동적(5)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전형적(8)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	전형적(7)

www.kci.go.kr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나이에 성공했던 친구들은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 그런 게 있어서, 애한테는, 애가 나하곤 완전 다른, 완전 다른 길을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목표의식만 명확하다고 하면 인생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두 번째 하위 범주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사례가 이 범주에 속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취미생활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어학을 공부하며 진로준비를 하는 것, 세련되게 자기관리를 해 가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취미생활도 가끔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어요. (사례 6)

자기관리나 자기계발 같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당연히 또 지식을 쌓는 측면도 측면이지만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겉모습도 막 이렇게 아줌마처럼 부해지거나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몸매 관리도 하고 싶고 건강 관리도 하고 싶고 그런 모습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죠. 깔끔하고 세련된, 애도 있고 하지만, 애 엄마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까. (사례 7)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슈퍼우먼

세 번째 하위 범주는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슈퍼우먼'이 총 9사례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빈틈없이 잘 수행해가고 싶어 하는 워킹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는 정말 어우 정말, 일 잘해 재는 못하는 게 없어, 잘하네…. 뭐 집에서는 아이들과 완벽하게 뭐 밥도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해먹이고 집도 깔끔하고.. 집안일 밀리지 않고 아이들과 재밌게… (사례 1)

머릿속으로 당연히 이상적으로 떠오르는 건 일도 참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맘 같은. (사례 7)

근데 사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 뭔가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가정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례 8)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네 번째 하위 범주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의 모습으로 9사례,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승진하는 것,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일을 계속한다면 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 승진하는 그런 위치. 승진 뭐 이런거 커리우먼적인

www.kci.go.kr

그런 모습 있잖아요 (사례 2)

음..직장에서의 모습도 ..(중략) 애 보는 거 때문에 일을 좀 못할까 생각하는 주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정말 열심히 잘한다... 정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사례 5)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

다섯 번째 하위 범주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이며 6사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함께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하며 행복한 생활을 유지해가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도. 네 가정도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거.. (사례 8)

남편이랑도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10)

경제력을 갖춘 나

여섯 번째 하위 범주는 '경제력을 갖춘 나'의 모습이 있었으며, 5사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을 갖추어서 부모나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 돈을 쓸 때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을 안 하고 돈을 쓴다면 남편한테 괜히 눈치보일 것 같아요. (웃음) ...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시댁이나 그런 것도..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여행 가고,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이런 건데.. (사례 9)

이제 아이가 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대학까지는 갈 거고, 대학을 간다고 하면 연수를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막, 되게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런 거를 지원을 그냥 다른 집은, 제가 막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맨날 비교만 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 아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는, 해주는데 쪼들리지 않을만한.. (사례 10)

범주 2.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

한편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은 워킹맘이 일과 가정에서 마주하는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워킹맘의 노력과 수고보다는 자신과 상황을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범주에는 총 2개의 하위 범주가 있으며, 이 중 1개는 전형적, 1개는 변동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의 첫 번째 하위범주는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으로 8사례,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함께 병행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그냥 양립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 이거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사례 2)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

두 번째 하위범주는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이 7사례,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을 꾸려가며 만족하는 것, 한계를 받아들이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금 뭐 일에서도 육아 때문에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아이한테도 내가 일하는 엄마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전업주부 엄마처럼 해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자꾸 마음속으로 스스로 더 조금씩 더 양쪽 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례 7)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8)

영역 2. 두려워하는 자기

한편, 가능한 자기의 두 번째 영역인 '두려워하는 자기'는 워킹맘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두려워하는 자기는 크게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와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의 두 범주로 분류되어 총 10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려워하는 자기의 범주와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범주 1.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 범주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하여 얻게 되는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범주에는 6개의 하위 범주가 있으며, 이 중 4개는 전형적, 2개는 변동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두려워하는 자기 영역의 범주 및 빈도

범주	하위 범주	빈도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전형적(10)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전형적(10)
	일을 포기하게 됨	전형적(8)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전형적(7)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변동적(6)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변동적(5)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	도움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모습	전형적(11)
	항상 시간에 쫓김	변동적(5)
	경제력을 상실함	변동적(4)
	체력의 한계를 느낌	변동적(3)

www.kci.go.kr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의 첫 번째 하위 범주는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이 10사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소통이 점점 단절되는 것, 자녀에게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것, 자녀가 조금 잘 못되기라도 하면 일하느라 돌보지 못한 내 탓일 것만 같은 두려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가 ATM 기계가 되는..(중략) 그니까 집에서 엄마는 그러면 계속 돈버는 기계.. 계속 애들이랑 정서적인 교감이 없어 그냥 쭉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은 평행선이 평행선이 아닌게 되고 점점 점점 간극이 넓어지면서 소통이 안되고 왜.. 엄마 방에 들어오지마 이렇게 딱 문닫아 버리고 이럴꺼 아니에요. (사례 2)

> 애가 크게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삐뚤어지면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 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애한테 신경을 못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가 잠깐이라도 안 좋은 길에 살짝 이렇게 빠지거나 만약 이랬을 때. 계속 내가 일을 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은 계속 들 것 같아요. (사례 11)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두 번째 하위 범주로는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가 10사례,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조율로 자녀와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것, 일하느라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시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두려운..남편하고도 이제 자꾸 대립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퇴근시간 때문에 이게 본인도 회식을 해야되고 저도 회식을 해야 되고...빠질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이랬을 경우에 또 그런 대립. 왠만하면 잘 안 싸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대립이 생기더라구요...갈등이 생기고 그니까..이제 많이 이해를 해줘도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시점이 있고 (사례 1)

> 그게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기를 잘 못,,본다고 생각을 할까봐 왠지 남편이..너는 애기보다 니 일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괜히 제 혼자 찔리는거죠 그냥..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이런 눈치를 제가 보게 되죠.. 은연중에. (사례 3)

> 근까 너무 막 바빠서 제가 막 시댁에 전화도 못 드리고 애도 막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와서 너 그것 땜에 되게 그랬다 그러면 되게 울컥할 것 같아요. (사례 9)

일을 포기하게 됨

세 번째 하위 범주로 '일을 포기하게 됨'이 8사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가 원치 않게 결국 일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www.kci.go.kr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일하다가 경력단절되면 마트에서도 안 받아준대.. (웃음)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커리어를 놓치면 그 후에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사례 9)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제 스스로가 지쳐서 그만, 일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을 지.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해요. (사례 11)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네 번째 하위 범주는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7사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녀들 문제로 회사 일에 집중 못하는 것, 퇴근시간 때문에 눈치 보는 것, 출산과 육아로 연봉이나 고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일을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었다.

어쨌든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케어를 해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꾸 사정을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쨌든 결국은 또 어떤 또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어떤 그런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고. (사례 7)

그 일단 연봉이나 고가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도 성과를 분명히 내고 있고 분명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일단 육아때... 일단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밤에도 연락 온다거나 뭐 이런 거죠.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전 애랑 붙어있어서 있어야 되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쉬운 환경은 아닌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콜이 오면은 프레셔를 받게 되죠. 일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가 붙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계속 익스큐즈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제가 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죠. (사례 12)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다섯 번째 하위 범주는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이 6사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 나를 잃어버리는 것, 꾸역꾸역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모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너무 아줌마가 되버릴까봐,, 아줌마란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나를 꾸미지 않고 너무 느슨해져 버리고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례 5)

이제 나 자신도 못 챙기고..나,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 같은...그런 걱정도 있고. (사례 6)

주말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 지쳤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와~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되게 지친 얼굴로 계속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꾸역꾸역 하는데 집안 분위기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해피해 보인다거나 의지에 차있거나 그런 재기발랄한 모습이 아니라 힘들어. 하지만 해야 돼. 빨래가 밀렸어. 막 이러면서 좀비처럼 막 있으니까 (사례 12)

www.kci.go.kr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여섯 번째 하위 범주는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으로 5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회사 일, 집안 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워킹맘의 모습이 있었다.

> 그냥 뭐. 둘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최악인데..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가서 화내는 그런 모습. 그건 진짜 좀 두렵죠. (사례 4)

>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고 다 비슷하게 애를 낳아 갖고 워킹맘이 엄청 많은데 맨날 트러블이에요 매일 매일 트러블이에요 다들 똑같아요 ..어우 죽겠다 애 아프다 근데 뭐 어쨌고 시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맨날 애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갖고 새벽에 어떡해 어떡해 하고 막 집안일 주섬주섬 하다 보면 이렇게 해 갖고 일은 일대로 안되고 애도 잘 안되고 모두가 다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는 그래 갖고 이래 갖고 되겠나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똑같구요. (사례 12)

범주 2.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

한편,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 범주는 워킹맘이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을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다. 이 범주에는 4개의 하위 범주가 있으며, 이 중 1개는 전형적, 3개는 변동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움받기 위해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모습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의 첫 번째 하위 범주는 '도움받기 위해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모습'이 11사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양육의 도움이 없이는 일-가정 양립이 힘든 점, 집에도 회사에도 미안해하는 모습, 육아에 예상치 않는 문제(예: 자녀가 아플 때)가 생겼을 때의 난처해하는 워킹맘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 회사에서도 죄인이고 집에서도 죄인이라고, 이제 혹시나 회사에도 민폐가 되고 집에서도 민폐가 될까 봐..애기가 너무 어리거나 그러면은 업무를 딱 끝내고 가면 그러면 그 6시 이후에 전화가 빗발쳐요. (중략)..그렇다고 마냥 그냥 내일 통화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민폐가 남들한테도 끼칠까 봐. 제 일만 있으면 되는데 또 저희는 거의 같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사례 4)

> 지금 애가 어린데, 얼마 전에 폐렴이, 폐렴이 올 겨울에 두 번 왔어요. 그냥 폐렴이 왔는데도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좀 해결이 안돼 갖고 저희 지방에서 시부모님이 올라와서 2주 동안 애를 보게 했거든요. (사례 12)

항상 시간에 쫓김

두 번째 하위 범주는 '항상 시간에 쫓김'으로 5사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나 육아를 하며 늘 시간이 부족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워킹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www.kci.go.kr

지금은 아기한테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뭔가를 배운다거나 자기 발전적인 시간을 가진다거나.. (사례 3)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음이....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일단 난 빼고... 내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친구도 못 만나겠어요. (사례 12)

경제력을 상실함

세 번째 하위 범주는 '경제력을 상실함'이 4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녀를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것, 노후에 자녀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돈이고, 뭐지, 어디서 봤는데 이제는 무슨 흙장난 같은 걸 하려고 가려면 어디 키즈카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흙장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시켜도 되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애한테 뭐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하려면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면 못해주는 거잖아요. (사례 10)

용돈 받아 쓰면.. 그게 참 걱정이 되거든요 요즘 세상에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좀.. 아.. 자기 자신만으로도 그.. 집 구하는거나, 이런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부담이라도 안줬으면 좋겠어서..부담 줄 필요까지 부양의무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좀 안주고 싶고.. (사례 13)

체력의 한계를 느낌

네 번째 하위 범주는 '체력의 한계를 느낌'이 3사례,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몸으로 느끼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워킹맘들에게 있었다.

제가 좀 체력이 약해요 (네) 그래서 일을 애기가 없을 때에도 직장을 갔다오면 한 9시 10시면 뻗어서 잤었어요. 그게 그런 모습이 두려워요. (사례 2)

체력 부담은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 보약이라도 해먹어야 되나.. 그게 안되면은 솔루션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그리고 저는 지금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느꼈어요. (사례 12)

영역 3.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

세 번째 영역인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워킹맘에게 희망하는 자기와 두려워하는 자기가 변화할 경우,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양육 요인', '양립지원 요인', '개인내적 요인'의 3개 범주와 총 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 범주와 빈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범주 1. 양육 요인

양육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 요인을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이 범주에는 '자녀요인', '양육의 부담이 경감됨', '양육자의 건강'의

www.kci.go.kr

표 4.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

범주	하위 범주	빈도
양육 요인	자녀요인	변동적(6)
	양육의 부담이 경감됨	변동적(4)
	양육자의 건강	변동적(3)
양립 지원 요인	집안의 경제 상황	변동적(5)
	남편과 가족의 지원	변동적(4)
	사회제도의 변화	변동적(3)
	직장근무지	변동적(2)
개인내적요인	개인의 가치관, 관점 및 의지	변동적(3)

3개 하위 범주로 나타났다.

자녀요인

'양육 요인'의 첫 번째 하위 범주는 '자녀요인'으로 6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자녀수, 자녀 건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이들,, 나를 봤을 땐 회사가 나에게 큰 존재고 중요한 거지만 집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집이 잘 되야 뭐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편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커가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문제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사춘기 이럴 때를 지날 때 아이들이 이제 엇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나 때문이라면.. 혹시 내가 그렇다면 그때는 조금 이쪽을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회사,, 좀 그렇게되면 아무래도 내가 희망하는 인정받고 이런거는 네 없어지게 되겠죠 더 중요한건 아무래도 .. 아이들이니까 (사례 1)

> 아이가 이제 내 의지와는 다르게 뭐 다른 방향으로 컸다던가..뭐 예를 들면 뭐 아프다던가 발달의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공부를 뭐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한다던가.. (중략) 그런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줄이고 아이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사례 5)

양육의 부담이 경감됨

두 번째 하위 범주는 '양육의 부담이 경감됨'이 4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의 부담이 감소되는 것을 변화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 크면은 조금 이제 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회사 끝나고 와서도 네, 왠지 손이 조금 덜 갈 것 같고. 지금은 항상 제가 재워주고 일 끝나고 와서도 그래야 되니까, 뭔가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한데. 좀 크면은 알아서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 시간도 조금 더 생길 것 같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례 6)

www.kci.go.kr

양육자의 건강

세 번째 하위 범주는 '양육자의 건강'이 3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워킹맘 본인의 건강과 주변 양육지원자의 건강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건강상의 문제?..뭐 도와주는 분에 대한 그니까 만약에 이거는 친정엄마가 될거 같은데요 갑자기 뭐 도움을 못받게 된다거나 (사례 5)

범주 2. 양립 지원 요인

'양립 지원 요인'은 워킹맘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요인이다. 이 범주에는 '집안의 경제 상황', '남편과 가족의 지원', '사회제도의 변화', '직장근무지'의 4개 하위 범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의 경제 상황

'양립 지원 요인'의 첫 번째 하위 범주는 '집안의 경제 상황'으로 5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들은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자기와 두려워하는 자기가 바뀌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울며 겨자 먹기처럼 끝까지 다닐 수도 있는..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 짤리거나 그러면 제가 벌어야 되잖, 제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례 2)

>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뭐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례 10)

남편과 가족의 지원

두 번째 하위 범주로 '남편과 가족의 지원'이 4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도와주는 주변의 지원이 있을 때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변화할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이 도와준다면 달라지겠죠? (사례 3)

> 가족이니까 맡기지. 만약에 데리고 와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지원이 얼마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사례 9)

사회제도의 변화

세 번째 하위 범주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3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탄력근무제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 회사제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워킹맘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전 근무만하고 오후는 퇴근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사례 3)

직장근무지

네 번째 하위 범주는 '직장근무지'가 2사례

www.kci.go.kr

'변동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근무지가 이동이 될 경우, 가능한 자기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근무지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게 바뀌잖아요. 근데 신랑은 지금 계속 서울에서 어쨌든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 4)

범주 3. 개인내적 요인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요인은 '개인내적 요인'으로 시간이나 특정 사건에 따른 개인의 가치관, 관점 및 의지의 변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관, 관점 및 의지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범주인 '개인내적요인'에는 개인의 가치관, 관점 및 의지가 3사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 등이 가능한 자기의 모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었다.

> 내가 막.. 계속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들이, 후에 지나면, 아 그때 그랬는데, 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어. 라고 하는 거. 어떤, 관점이 좀 바뀌거나 중요도가 좀 바뀌거나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8)

다양한 조건하에서 보고된 가능한 자기

워킹맘들이 가능한 자기에 대해 응답한 후, 그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추가질문 하였고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망하는 자기

먼저, 희망하는 자기에서 가장 희망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 자기에 대해 피험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희망하는 자기 범주 8가지 중, 가장 희망하는 자기로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어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 자기 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를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로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그렸으며,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할 자신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소홀하지 않음, 경제력을 갖춘 나,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을 꼽았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로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보면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

www.kci.go.kr

표 5. 희망하는 자기 내용분석 결과

내용	범주
가장 희망하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음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 자기 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희망하는 자기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소홀하지 않음 경제력을 갖춘 나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하는 자기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 경제력을 갖춘 나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없음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 자기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가는 것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 경제력을 갖춘 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일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소홀하지 않음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감

경제력을 갖춘 나,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는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주목해볼 것은 가장 희망하는 자기로 꼽은 범주의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에도,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에도 언급되고 있다. 가장 희망하는 것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며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했다. 대표적인 예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워킹맘의 기대, 중요도

www.kci.go.kr

그리고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하는 자기로 분류하고 있었던 사람은 개인의 욕구는 있지만, 현실에 놓인 한계를 마주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워킹맘들이 희망하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을 언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에 모두 다 있는 내용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높다고 언급한 워킹맘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며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반면, 낮다고 말한 피험자는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고 출퇴근 시간에 눈치를 보며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기회가 늦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하는 워킹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시점이 13명 모두 5년 이내의 가까운 자기의 모습과 연결되어 응답하였다. 20-30년 후 희망하는 자기의 모습을 떠올릴 때는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가는 것,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 경제력을 갖춘 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는 나, 일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소홀하지 않음, 일-가정 양립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낮은 두려운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해 피험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기 범주 10개 중,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는 6개의 범주가 언급되었고, 또한 말한 모든 것이 두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가장 두려운 자기로 보고된 범주를 살펴보면,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이 있다. 워킹맘이 가장 희망하는 측면도 자녀를 잘 돌보기를 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녀'와 관련된 변인이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항상 시간에 쫓김'을 가장 두려운 자기로 보고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의 범주에도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자녀에게 소홀한 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항상 시간에 쫓김,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로 꼽았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에도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워킹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www.kci.go.kr

표 6. 두려워하는 자기 내용분석 결과

내용		범주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항상 시간에 쫓김
		모두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두려워하는 자기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항상 시간에 쫓김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실현 가능성이 낮은 두려워하는 자기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움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시점을 달리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기	가까운>먼	경제력을 상실함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일을 포기하게 됨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체력의 한계를 느낌
		도움받기 위해 여기저기 미안해 함
		없음
	먼>가까운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www.kci.go.kr

특별히,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경제력을 상실함', '일을 포기하게 됨' '항상 시간에 쫓김'으로 나타나, 모두다를 제외하고 가장 두렵다고 말한 6개의 내용 중 5개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워킹맘들안에 있는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항상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해 13명중 12명은 5년 이내의 가까운 시점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했고, 1명은 20-30년 후의 두려움에 대해 보고했다. 이들에게 시점을 달리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20-30년 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현시점의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와 비슷하게 말했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감, 체력의 한계를 느낌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에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잃어가고, 또 건강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도움받기 위해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모습은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자기를 먼 시점에서 응답한 피험자에게 가까운 시점의 두려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일-가정을 양립하며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미래의 가능한 자기에 초점을 맞추어 희망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 가능한 자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가능한 자기는 어떻게 보고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희망하는 자기의 영역에서 워킹맘들은 '일-가정 양립 노력 중심'과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의 범주를 나타냈고 두려워하는 자기 영역에서는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와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의 범주를 보였다. 또한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양육요인', '양립지원 요인', '개인 내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희망하는 자기와 두려워하는 자기의 내용 중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가능성이 높은/낮은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의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에 대한 부분은 내용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희망하는 자기로 일-가정의 양립노력 중심과 물리적 한계 수용중심의 자기 모습을 표현하였다.

일-가정 양립노력 중심의 희망하는 자기의 모습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며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은 나', '자기 계발과 자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 나',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 '경제력을 갖춘 나'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삶의 큰 두 축을 양쪽 모두 부족함 없이 해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담겨있다.

성장과정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현재 3, 40대의 워킹맘들은 '나 자신'의 성취와 성장에 대한 열망과 전통적인 '엄마상'에 대한 욕구를 함께 드러냈다. '경제력을 갖추

www.kci.go.kr

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희망하는 자기의 모습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기혼여성으로의 모습보다는 오롯이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취를 이루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나를 꿈꾸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잘해내고자 하는 희망은 전통적인 유교문화 속에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할 경우 치명적인 실패라는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현실을 반영하는(노성숙 등, 2012) 측면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43.9%까지 높아지며(통계청, 2015a)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맞벌이 부부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40분, 여자 3시간 14분(통계청, 2016)으로 조사되어 기혼이면서 직장을 가진 유자녀 여성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결국 '일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완벽한 수퍼우먼'으로 기능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기혼 유자녀 직장여성의 수퍼우먼 신드롬에 대한 최근의 연구(한경훈, 박소정, 길세현, 2015)에서 수퍼우먼 신드롬 상태에 빠진 중독형 집단이 10.5%, 수퍼우먼 신드롬이 있지만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끔 치밀어 오르는 갈등형 집단이 84.5%로 나타나서 전체 연구대상의 95%가 수퍼우먼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즉, 시대 변화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었지만 전통적 여성의 역할의 영역 또한 거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일-가정 양립노력 중심의 희망하는 자기에 반영되어 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의 모습을 희망하는 것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협업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배우자의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혼 유자녀 맞벌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연구(유성경, 임지숙, 손은영, 2016)에서 '맞벌이 지속을 위해 남편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워킹맘들의 일-가정 양립경험 비교연구(O'Brien et al, 2014)에서 한국 워킹맘들은 배우자 지지가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워킹맘들에게는 배우자 지지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 한계 수용 중심의 희망하는 자기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해나가는 그 자체에 대한 기대로 '양립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사례 2) 이어나가고자 하는 희망과 현실적인 여러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계를 인정하며 의미를 찾아가기를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구조와 관행은 이 둘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는(원숙연, 박지연, 2009) 상태에서 일-가정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희망은 결국 적극적 성취를 포기하고 그저 양립 그 자체를 이어나가는 것에 집중하거

www.kci.go.kr

나, 혹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 양립의 의미를 찾아내길 기대하는 선에서 멈추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은 '일-가정 양립 노력 실패'와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의 미래상으로 범주화되어 나타났다.

일-가정을 양립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미래상의 모습은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일을 포기하게 되는 나',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가는 나',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운 나'로 표현되었다.

2016년 일-가정 양립 지표를 살펴보면, 일과 가정 중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42.3%로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경우(15.6%)보다 약 2.7배나 많았다(통계청, 2016).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선호 혹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답변일 수도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두려운 자기의 모습에서도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을 포기하게 되는 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물론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모습이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나' 역시 일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일이 자녀 양육이나 가족과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와 함께 '일도 가정도 모두 엉망이 될까 두려운 나'의 모습은 수퍼우먼 신드롬의 이면을 보여주는 미래상으로, 일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하고 싶지만 결국은 '일은 일대로 안되고 애도 잘 안되고 모두가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는(사례 12)' 둘 중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둘 다 완벽하게 해내기를 희망하는 수퍼우먼이 이루기 어려운 허상이듯, 일과 가정에서 만족할만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최악(사례4)' 이나 '실패(사례8)', '수퍼맘이 되기 위한 강박(사례5)'등의 표현으로 과하게 지각하고 있는 측면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주관적인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실제보다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안주하며 의미를 잃어가는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경계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즉,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양립의 주체인 '나' 자신의 자기감을 유지하고 '나'로써 기능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표현되었다. '나 자신도 못 챙기고 나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 같은(사례6)' 걱정이나 '내가 없어지는 느낌(사례8)'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기존의 일-가족 갈등(김성천, 탁진국, 2010; 이영지, 2011; Ford, Heinen, & Langkamer, 2007; 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족 향상(김효선, 김옥선, 2010; 정영금, 2006; 한경혜, 김진희, 2003; Frone, 2003;)의 구조기능주의적 역할이론을 넘어서서 일-가족 간의 상호성에 초점을 두고 일과 가정의 영역을 넘나드는 개인에게 주목하는 경계이론(border theory, Clark, 2000)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과 가정에서 주어진 역

www.kci.go.kr

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개체로서가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해나가는 주체로서의 나의 영역을 강조하며 스스로 '나다움'의 발전적 모습을 수행해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로 인한 두려워하는 자기는 '도움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나', '항상 시간에 쫓기는 나', '경제력을 상실한 나',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나'로 나타났다. 이 중 '도움받기 위서 여기저기 미안해하는 나'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어린 자녀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이가 아프거나 회사에서의 업무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돌봄은 유동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기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회사나 양가 부모님에게 원치 않게 폐를 끼치게 되는 '회사에서도 죄인이고 집에서도 죄인(사례4)'인 상황이 예측불가능하면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개선책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오가며 나름대로의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데도 결국은 여기저기에 미안해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한 명의 워킹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편, 부모님, 친척, 혹은 주변사람이라는 사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며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워킹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연구(노성숙 등, 2012)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시간에 쫓기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두려움은 이러한 한계를 체감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부모님 댁 근처로의 이사까지 고려하고, 시간과의 전쟁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사는 워킹맘들의 모습(유성경 등, 2016)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제력의 상실 역시 물리적 한계 수용 실패로 인한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경제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양육요인', '양립지원요인', '개인내적요인'의 범주로 나뉘었다. 비록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빈도상으로는 모두 '변동적'으로 나타났으나 가능한 자기는 성취하거나 포기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생성, 수정, 제거되는 역동성을 가져서(Barreto & Frazier, 2012) 개인의 발달단계가 변화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시점을 달리했을 때의 가능한 자기의 모습은 현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가능한 자기의 변화를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시점에 따른 가능한 자기 모습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양육요인 중 자녀요인은 아이들에게 발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일의 비중을 줄이거나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속하려면 자녀의 원만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워킹맘들은 가정의 안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다. 남성은 일을 통하여 경제적 수단을 얻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산업사회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며 사회화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의 역할 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는(송지은, 한경혜, 2007; 장재윤, 김해숙, 2003; Aryee, Srinivas, &

www.kci.go.kr

Tan, 2005; Kirchmeyer, 2006; Martins, Eddleston, & Veiga, 2002)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하여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면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 것이라는 기대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자신 혹은 양육을 도와주는 대상의 건강상의 문제도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양립지원요인은 주로 워킹맘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통제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었다. 집안의 경제상황이나 남편과 가족의 지원, 사회제도와 직장 근무지의 변화 등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워킹맘 개인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영역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나가는 워킹맘들의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 개인 내적인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관점 및 의지의 변화와 관련된 단일한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은 혼자서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없고 함께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객관적인 상황, 환경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내적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심리학의 영역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위의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의 범주 3가지 중 2가지, 하위 범주 8가지 중 7가지가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의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되어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맞벌이 가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전통적인 남녀의 개념을 수정하고 이에 도전하며 의미를 넓히게 해주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Gilbert, L. A., & Rader, J. I. L. L., 2008).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상적으로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산업시대의 전형성에 여성에게 '일'이 더해져 과부하가 가중된다면 이는 일하는 엄마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희망하는 자기와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보고된 가능한 자기를 제시하였다. 출산후 워킹맘들이 응답한 가능한 자기의 내용 중,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희망하는 자기를 살펴보면, 희망하는 자기에 언급된 내용 중 '경제력을 갖춘 나'가 제외되었는데 경제력을 가지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바라는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에 기반한 구체성을 띈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의 희망하는 자기에는 모두 '경제력을 갖춘 나'의 모습이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출산후 워킹맘들의 가장 희망하는 모습은 '경제력을 갖춘 나'를 최우선에 두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망하는 자기를 물었을 때, 13명의 참여자 모두가 5년 이내의 가까운 모습을 생

www.kci.go.kr

각하였고 이러한 시점을 장기적으로 바꿨을 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30년 후의 희망하는 자기에 대하여 물었을 때, 가장 희망하는 자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수퍼우먼'과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나'는 제외되었다. 자녀양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완벽한 수퍼우먼'과 '행복한 가정'을 향한 바람은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보다 집중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가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자기를 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희망하는 지의 여부나 실현가능성의 높고 낮음, 시점을 달리했을 때의 모든 희망하는 자기 속에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와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나'가 있었다. 이는 일과 가정 중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42.3%로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경우(15.6%)보다 약 2.7배 많다(통계청, 2016)는 결과, 가능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일을 줄이거나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이 별 탈 없이 유지되는 것이 전제된다면 일을 우선시하고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자기, 시점을 달리했을 때 두려운 자기를 포괄하는 두려움은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하는 것과 '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일을 포기하게 되는 나'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조건하의 희망하는 자기에서 공통적으로 응답된 내용을 뒤집어 기술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이 원만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일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하위 범주들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가능한 자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을 지속하며 일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희망하는 자기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은 나(전형적, 11)'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나(전형적, 9)', 두려워하는 자기의 '일을 포기하게 됨(전형적, 8)'과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전형적, 7)'은 일을 전면에 드러내며 '나'라는 개인으로서 온전히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렇듯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소홀하지 않음'이나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전형적, 8)'을 희망하는 자기, '일하는 엄마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움(전형적, 10)'을 갖는 자기 역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희망하는 자기와 두려워하는 자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11개의 하위범주 중 7개를 차지하는 것이다. 가장 희망하는 자기에서 '경제력을 갖춘 나'는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실현가능성이나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어떻게든 일과 가정을 유지하는' 자기는 일관되게 언급된 것에서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고유한 주체로 일하고자 하는 미래상이 워킹맘들에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차별화되는 점이다.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떠나는 기혼 여성이 44%(통계청, 2015b)에 달한다는 통계에 견주어 볼 때,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으며 육아를 함께 하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는 본 연구의 참여

www.kci.go.kr

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바라고/두려워하는 미래상에 대한 조망은 상담적, 정책적으로 함의를 갖는다.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회제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없는 작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개인의 희생과 대처로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출산 후에도 일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전통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소홀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렵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무리가 되고 과중한 압박을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과부하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적 대처, 관점의 전환, 양립 상황에 있는 자신을 돌보기 등을 돕기 위한 개인 혹은 집단적인 상담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기대 등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지속하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무리한 기대는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장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는 제도로 갖춰진 틀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나와 주변의 인식과 시선, 실질적인 제도의 이용가능성 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1년 이내 직장을 떠나서 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동일 직장의 고용 유지율은 56.6%에 그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일을 지속하고 일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워킹맘들의 욕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와 필요성에 대한 주변인식의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갖춰진 제도가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명확한 미래상을 다양하게 드러냈다. 일-가정 양립은 이 둘을 병행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제도나 시설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장영은 등, 2011; 정영금, 2004).

본 연구는 경험을 회고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생하게 가장 힘든 시기의 육아를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과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상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장 일을 하면서 육아를 포함한 가정 일을 함께 해나가는 치열한 매일의 삶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과업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 어렵도록 만들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 두려워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근시안적인 일상을 헤쳐

www.kci.go.kr

나가는 삶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희망하는 자기/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면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능한 자기의 변화요인, 가장 희망하는/두려워하는 자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대하여 묻고 참여자가 말한 시점이 가까운 미래라면 먼 미래로, 먼 미래인 경우는 가까운 미래로 시점을 변화시키면서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로만 참여자가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과 감수자의 개인적 시각,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함께 양립하고 있는 배우자나 워킹맘을 돕고 있는 주변인들과 가족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져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와 관점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준만 (2009). 어머니 수난사. 서울: 인물과 사상사.

김경화 (2013).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 성별과 관련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4), 60-90.

김성천, 탁진국 (2010). 역할과부하 및 일-가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35-49.

김인선, 이동명 (2009). 조직의 지원환경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19(2), 67-94.

김정환, 이선이 (2014). 한국 30대 고학력 남성들의 아버지상과 아버지 역할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6(3), 71-104.

김효선, 김옥선 (2010). 다중역할의 상호향상효과. 경영학연구, 39(2), 375-407.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류임량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전이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 연구, 9(2), 119-156.

박양주, 우영희 (2012).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28(2), 263-287.

세계일보 (2017). 다가온 인구절벽...50년 뒤 한국 일할 사람 없다. 2017. 1. 1.

송지은, 한경혜 (2007). 직업, 가족 및 일-가족 전이가 취업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미국의 비교. 가족과 문화, 19, 61-92.

원숙연 (2004).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능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원숙연, 박지원 (2009).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www.kci.go.kr

갈등 및 일-가족 촉진에 미치는 영향. 여성학논집, 26, 3-32.
여성・문화네트워크 (2014). 2014 워킹맘고통지수.
유성경, 임지숙, 손은영 (2016). 한국 맞벌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6), 475-498.
유영주 (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윤소영, 윤 주 (2008).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수연 (201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 여가스포츠 참여 활동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102-113.
이영지 (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요인이 근로자의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정, 유규창 (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0(1), 37-79.
장미경, 조혜경, 이숙경 (2007). 맞벌이 여성의 주부 역할에 관한 체험 연구. 질적연구, 8(1), 39-54.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권보라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23-42.
장지연, 박선영, 신동균 (2014).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 (2008). 기혼 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59-79.
전혜정 (2016). 부모기 전이 부부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8, 60-87.
정영금 (2006). 맞벌이가정의 일-가족 균형감을 통해 본 균형촉진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31-331.
정영금 (2004).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91-100.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2001~ 2010 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차배근, 차경욱 (2013). 사회과학연구방법: 실증연구의 원리와 실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최효미 (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통계청 (2015a). 2015 전국 맞벌이 가구비율.
통계청 (2015b). 201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16). 2016 일-가정 양립지표.
한경혜, 김진희 (2003). 일・가족 상호작용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7(3), 57-81.
한경혜, 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85-115.
한경훈, 박소정, 김세현 (2015). 기혼유자녀 직장여성의 수퍼우먼 신드롬 유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양상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25-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

www.kci.go.kr

고서.

황수경 (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12-413.

Anderson, T., Liam, R., Garrison, D. R., & Archer, W. (2001). Assessing teaching presence in a computer conferencing context.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5*(2), 1-17.

Aryee, S., Srinivas, E. S., & Tan, H. H. (2005). Rhythms of lif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balance in employ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132.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

Barreto, M. L., & Frazier, L. D. (2012). Coping With Life Events Through Possible Selve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7), 1785-1810.

Berg, C. A., Strough, J., Calderone, K. S., Sansone, C., & Weir, C. (1998). The role of problem definitions in understanding age and context effects on strategies for solving everyday problems. *Psychology and aging, 13*(1), 29.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Ford, M. T., Heinen, B. A., & Langkamer, K. L.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Frazier, L. D., &Hooker, K. (2006). Possible selves in adult development: Linking theory and research. *Possible selves: Research and application*, 41-59.

Frazier, L. D., Hooker, K., Johnson, P. M., &Kaus, C. R. (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possible selves in later life: A 5-year longitudinal stud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2*(3), 237-243.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ilbert, L. A., & Rader, J. I. L. L. (2008). Work, Family and Dual Earner Coupl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 426-443.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Hill, C. E. (Ed.).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irchmeyer, C. (2006). The different effects of family on objective career success across gender: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2), 323-346.

Knox, S., Hess, S. A., Petersen, D. A., & Hill, C. E.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client

www.kci.go.kr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helpful therapist self-disclosure in long-term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3), 274.

Martins, L. L., Eddleston, K. A., &Veiga, J. F. (2002).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career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2), 399-409.

McClelland, C. (2011). An examinat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selves of adolescents: Investigating possible selves and self-esteem in relation to gender and attachment. *The Plymouth Student Scientist, 4*(2), 104-130.

Manzi, C., Vignoles, V. L., &Regalia, C. (2010). Accommodating a new identity: Possible selves, identity change and well being across two life transi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6), 970-984.

Markus, H., & Nuri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O'Brien, K. M. Ganginis Del Pino, HV, Yoo, S.-K., & Cinamon, RG (2014). Work,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Employed mothers in Israe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461-472.

OECD (2015). Index, O. B. L. Life satisfaction.

Oyserman, D., & James, L. (2009). Possible selves: From content to process.

Oyserman, D., & Markus, H. (1990).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2-125.

Sorkin, D. H., &Rook, K. S. (2006). Dealing with negative social exchanges in later life: coping responses, goals, and effectiveness. *Psychology and aging*, *21*(4), 715.

1차원고접수 : 2017. 04. 25.
심사통과접수 : 2017. 06. 13.
최종원고접수 : 2017. 06. 1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7, Vol. 22, No. 2, 211-245

Working Mothers' Possible Selves after Childbirth

Jee-Suk Lim Young-Sun L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xplore the possible selves(hoped for selves, feared selves) of women who manage both child-care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13 women who had the youngest child under the age of two, working for more than 40 hours a week and kept working more than 3 years. We analyzed them in a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3 domains, 7 categories and 26 subcategories were deducted, The first domain was identified as 'Hoped for self'. and its categories are two; 'Eff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acceptance for physical limitation'. Each category contained 6 and 2 subcategories respectively. The second domain was identified as 'Feared self' and it was deducted as 'failur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with 6 subcategories and 'failure of physical limitation acceptance' with 4 subcategories. The third domain was explored as 'Modifying factor of possible self' and it contained 3 categories; 'nurturing factor' with 3 subcategories, 'reconciliation support factor' with 4 subcategories, and 'individual internal factor' with 1 subcategory. To look at possible self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most hoped for/feared self, highly feasible/improbable self, hoped for/feared self at different times were explored and explained for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king mothers, possible self, work-family reconciliation, CQR, content analysis

www.kci.go.kr